



# 원산총파업

## 일제하 노동운동의 꽃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실장

### 연대를 시작하여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는 1백여 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발생과 더불어 시작된 노동운동은 이미 독자의 사회운동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며, 이념과 조직만이 아니라 그것이 지니는 의미와 비중 면에서도 거대한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새 천년을 시작하는 21세기, 노동운동의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고자 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현재도 과거가 되고 미래도 현재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며 미래의 역사입니다.

노동운동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날 노동자들의 지위는 어디까지 와 있으며 노동운동의 역할은 어느 정도 성장한 것일까? 노동조합운동이 목표로 하는 경제·사회·정치적 지위 향상은 어디까지 이룩되었을까? 오늘날의 성과를 이루기까지 노동자들은 어떻게 싸워 왔는가? 오늘날의 성과를 이룩한 원인은 무엇이고 이제 노동운동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렇듯 노동운동을 보는 이유는 오늘 의 운동을 더 잘하기 위함입니다. 노동운동의 성과가 오랫동안 노동자에게 스스로의 힘과 투쟁으로 일구어 낸 것이라면 과거의 경험은 노동자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노동운동을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일의 운동의 발전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운동은 패배와 승리, 침체와 고양, 정체와 비약의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노동운동을 통해 바로 이러한 역사발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운동에 전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나라 노동운동의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 본 사건, 우리나라 최초의 총파업(general strike), 원산총파업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올해는 1929년 1월에서 4월에 걸쳐 진행된 원산총파업이 일어난 지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원산총파업은 그 규모나 지속성, 그리고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 수준으로 보아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식민지 시기를 대표하는 투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당시 투쟁의 실상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산총파업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그것은 노동과 자본의 역학관계, 노동자들의 투쟁전술과 자본측의 대응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1927년 6월 원산노동자들의 단체인 연립회관에서 1928년 9월 8일에 발생한 문평제유노동자들의 파업에 이르는 시기는 원산총파업의 첫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 노동자들은 원산총파업에서 핵심적인 문제였던 노동조합의 단결권에 대한 자본측으로부터 따냅니다. 두번째 단계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시기로서, 실제적인 총파업투쟁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총파업이 시작되어 노동자들의 전무적 단결이 시위로 폭발하고 노동자들의 다양한 투쟁 전술에 대하여 자본측의 총공세가 맞물리는 역동적인 상황이 창출되는 1929년 1월에서 2월 9일까지의 시기입니다. 3 단계는 원산노련에 개량적

지도부가 침투하여 자본측과 타협함으로써 파업이 막을 내리고 원산총파업의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싹트는 1929년 3월 이후의 시기입니다.

### 원산과 원산노련의 출범

원산이 근·현대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강화도 조약에 의해 부산에 이어 1880년에 개항되면서부터입니다. 원산은 일본과의 무역항으로 개항되어 상업, 무역 이외의 산업은 극히 부진하였습니다. 원산에는 1920년대 들어서야 회사령 폐지에 따라 공장이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나 그것은 주로 선박수리, 제조업, 간단한 기계 수리 및 주물업 등 소규모 영세 공장이었고 본격적인 공업화는 1920



년대 말 이후 일제의 대륙침략이 본격화한 이후에 시작됩니다. 원산지역에서 노동자계급의 출현은 이같은 원산의 역사적 성격을 반영하여 초기에는 토목, 부두노동자 등 자유노동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근대적 형태의 공장노동자가 주류를 점하기 시작합니다.

원산노련은 1925년 10월 당시 노동운동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창립된 지역 노동조합연합체입니다. 원산노련의 시초는 1921년 3월 15일 결성된 원산노동회였는데, 이 조직은 초기에는 순전히 객주조합에 부속되어 있던 보잘 것 없는 존재였으나, 김경식(金瓊植)등 탁월한 지도부에 의해 직업별 조직체로 개편하면서 활발한 조합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원산노동회가 원산노련으로 전환한 것은 단순한 조직명칭의 변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원산노동회가 직업적 배타성에 따라 친목과 상호부조를 활동의 기본 목표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 원산노련은 노동자의 계급적 성격을 반영한 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원산노련은 “1) 노동운동의 통일과 무산자의 세계적 제휴를 도모하고 무산계급의 해방을 기한다. 2) 교양에 노력하여 노동자의 지식을 계발하고 당면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며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노동자의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강령을 내걸었는데 아직까지 상호부조적 단체의 영향이 보이기는 하지만 노동자의 계급적 색채

가 훨씬 강화된 것이었습니다.

1929년 당시 원산노련은 해륙노동자의 거의 전부를 할 수 있는 1천 8백여 명과 기공적 직업(技工的職業)에 종사하는 양복, 양화, 인쇄, 이발공 등 노동자 약 4백여명 등 총 2천2백여 명의 조합원을 포괄하여 원산의 전 산업의 노동자를 장악하게 됩니다. 조직체계를 보면 연합회 산하에 장소와 직업에 따라 23개의 노동조합이 있었고 각 조합 안에는 다시 장소를 세분하여 수개의 도중(都中)이 있었습니다. 즉 원산노련은 수개의 도중이 모여 한 개의 노동조합이 되고, 또 그 노동조합이 모여 연합회가 결성되는 3단계 조직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 원산총파업의 발단

원산총파업의 최초의 발단은 1928년 9월 원산 교외 문평(文坪)제유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시작됩니다. 환경남도 덕원군 문평리에 있었던 라이징 선(Rising sun) 석유회사의 문평제유소는 영국인이 경영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지배인을 제외하고 모든 간부가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인 노동자에게 심한 민족적 멸시와 차별대우를 하는 동시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여 조선인 노동자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다마(高玉)라는 일본인 감독은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하는 일이 잦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

원산총파업의 최초의 발단은 1928년 9월 원산 교외 문평(文坪)제유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시작됩니다. 함경남도 덕원군 문평리에 있었던 라이징 선(Rising sun) 석유회사의 문평제유소는 영국인이 경영하던 회사였습니다.

니다. 그러던 차에 1928년 9월초 또다시 고다마가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분개한 조선인 노동자 120여명은 구타 사건의 주범인 고다마의 해임을 포함한 5가지 요구를 걸고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원산노련은 산하 조합원들의 파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사와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회사측은 상대조차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산노련이 제시한 조정안마저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조선인 사무직원 일부도 사표를 제출하였으며, 문평운송조합원들도 제유공의 파업에 연대하여 동정파업에 들어갑니다.

이에 당황한 회사측은 경찰로 하여금 파업단의 주요 인물을 검거케 하고 새로운 노동자를 모집하여 파업의 무력화를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원산노련의 지원 아래 장기전을 벌이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연대를 통해 파업한 지 20여일 만에 노동자들은 회사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받아내고 투쟁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맺어진 협약은 ① 폭행을 가한 감독을 축출할 것, ② 파업단에서 희생자를 내지 말 것, ③ 파업 중 임금은 회사측이 4할 지급 할

것, ④ 최저임금, 해고 수당, 위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대판(大阪), 신호(神戶) 등 다른 공장의 예를 참작하여 3개월 이내에 다시 협의에 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은 유예의 3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응답 없이 1928년 파업에서 합의된 협약을 무시하고 노동조건문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노동자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여 노동자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원산노련은 긴급집행위원회를 열어 8시간 노동제의 쟁취, 취업규칙의 개정 등 새로운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회사측이 이를 들어주고 노동단체를 승인하여 단체협약에 응할 때까지 '문평제유노동조합'과 '문평운송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동맹파업에 들어갈 것을 지시하였으며, 원산 부두노동자들에게도 이 회사의 물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측은 원산노련 등 민주적 노동단체를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해 일본 사용자의 이익집단인 '원산상공회의소(원산상의)'에 파업 해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원산상의는 파업노동자를 집단

해고하고,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여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조합원 내부분열을 위한 중상모략과 새로운 어용노조의 조직 등 갖가지 노동탄압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원산노련은 1929년 1월 22일 원산상의의 횡포와 기업주들의 악랄한 해고초치에 맞서 파업을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두량 노조, 해륙 노조, 결복 노조, 운반 노조, 원반 중사 조합, 원산 제면 노조 등 2,000여명의 노동자가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 원산총파업의 경과

이제 파업은 문평석유회사 차원을 뛰어 넘어 원산지역 총자본과 총노동의 내림으로 격화되었습니다. 강화되는 자본의 공세에 맞서 노동자들은 창조적인 투쟁 방법을 동원하여 자본에 맞서게 됩니다. 원산노련은 원산상의측의 파업파괴를 위한 노동자 모집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규찰대를 조직하여 전국 각지에 파견하고 강연회 개최, 가두연설, 전단살포 등의 각종 대중사업, 파업자금의 확보를 위한 금주금연동맹 등의 전술을 사용하여 총파업의 강도를 높여나갔습니다.

당시 원산노련의 파업호소전단에는 다음과 같은 행동 지침이 적혀있습니다.

우리는 결속력으로 대항할 것이요, 결코 원력으로써 맹동하지 말 것, 방금 우리는 금주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의를 핑계로

음주하지 말 것. 우리는 항상 규율을 정연하게 하여 진을 문란하게 하지 말 것. 식료품, 기타 생활비를 가끔씩 절약하여 지구전에 대비할 것. 일시 명동으로 안하여 무의미한 회생을 압도록 할 것.

1월 26일에는 양복직공을 비롯한 200여 명의 피복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에 합류하였고, 29일에는 원산매일신문의 노동자들이 2월 1일에는 양화직공노동조합과 일본인 목공, 토공들도 지지파업에 나섰으며 자유노동자들도 새롭게 자유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원산노련에 가입하는 한편, 파업에 동참하여 노동자들의 투쟁대오는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원산 노동자 2,000여명이 파업에 들어가자 함경남도 경찰부는 응원경찰대 300여명을 뽑아 원산서로 급파하였고 파업단의 간부 7, 8명을 검거하였습니다. 또한 함흥에 있던 일본군 제19사단 보병대에서 300여명의 군인을 차출하여 원산으로 파견하여 제인령을 방불케하는 공포감을 조성하였습니다. 원산상공회의소는 공장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인부 모집 광고를 만들어 원산지역과 부근의 농촌에 뿌리는 한편 멀리 인천까지 가서 노동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동아일보 1926년 1월 26일자는 공포분위기에 쌓인 원산의 거리 모습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1월 23일은 바람도 몹시 불거니와 일기도

원산의 노동자들이 일제의 탄압에도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자  
일제는 법적 정당성도 무시한 채 잔인한 폭력으로 총파업을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우 쌀쌀한데 시가의 이곳 저곳에서는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는 파업노동자의 뒤를 쫓아다니는 순사의 때가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자못 힘막한 기분 속에 빠져 언제 어딘 곳에서 어떤 일이 날는지? 이런 환경 하에 원산상의가 모인 한산노동자 10명이 부두에서 일하다가 파업단의 제지를 받았고 반항하는 몇 사람을 때려 노동회원 한(韓) 씨등 4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원산의 노동자들이 일제의 탄압에도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자 일제는 법적 정당성도 무시한 채 잔인한 폭력으로 총파업을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파업단 간부들을 검거, 구타, 납치, 투옥시키고 파업후원단체의 집회까지 금지시키며 이제까지 정당하게 합법적인 투쟁을 전개해 온 '원산노련'의 김경태 위원장과 주요 간부들을 이유 없이 구속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당시 김경태 위원장의 죄목은 '협박폭력죄'였습니다.

이에 맞선 원산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항쟁이었습니다. 핵심 간부가 구속되자 원산 노련은 2월 9일 위원장 대리 김태영을 비롯하여 간부를 새로 총원하였고, 1만여 명의 파업 노동자

와 그 가족들은 "한 잔의 술, 한 개비의 담배, 한 푼의 공비(公費)도 반동이다"라는 구호아래 하루 두끼만 먹고 술과 담배를 끊는 등 눈물겨운 투쟁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2월 12일 만주에 주문한 짐발이 도착하자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이것을 차에 싣고 시내 전역을 누비면서 시위를 전개하며 투쟁의 정당성을 알려 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피눈물나는 투쟁에 전국 각지의 사회 단체, 노동조합 등은 파업기금, 지지편지, 연대 집회 등으로 열렬한 성원을 보냈고 나아가 일본, 중국, 프랑스, 소련의 노동자들도 격려와 후원을 보내왔습니다. 아래의 글은 원산총파업을 지지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당시의 유인물입니다.

전국 노동자는 공감하게 일어나 원산정의를 승리시키자! 각 공장 직장에서 공민단을 조직하라! 원산정의를 전국 내외에 신재한 우리의 가족하고 처절한 노동조건을 해결하기 위한 빛깔이다. 이것은 결코 원산 노동자에 국한한 정의가 아니라 동일한 노동조건에 적취당하는 전국의 노동자는 이 정의가 자신의 정의인 것을 알아야 한다. 용다!

원산쟁의의 승패는 전국적 우리의 승리가 아니면 안된다. 전국의 노동자 제군! 그러면 우리는 원산쟁의를 우리의 거대한 참가와 지지로써 그 세력을 크게 하여 그림으로써 우리의 흡혈귀 고주의 패배를 진취하여야 한다. 옳다! 우리는 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또한 고주의 배후인 경찰의 간섭과 항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원산상'의 와 일제 경찰은 파업 파괴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출동시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파업단을 분열시키기 위하여 "함남노동회"라는 어용노조를 조직합니다. 또한 파업 지도부 구속이 이어, 이 파업을 사회주의운동으로 몰아 '치안유지법'으로 탄압할 계획을 세워 놓고 합법적인 쟁의를 공산주의운동으로 간주하여 공공연히 파업 지도부를 협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제의 책동에 김태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는 동요하고 투쟁을 올바르게 이끌어 내지 못하였습니다. 본래 변호사였던 김태영은 일찍부터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노동운동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며 검경식 위원장 구속 이후 쟁의에 대한 법적 문제들이 속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던 사람입니다. 일제의 음모와 위협에 김태영은 동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일제 당국과 원산 상의가 요구한 원

산노련의 강령 수정과 노련 간부의 경질에 타협하는 한편 3월 말 일부 노동자의 직장 복귀를 제시하였습니다.

"노동운동의 통일과 무산자의 세계적 제휴를 도모하고 무산계급의 해방을 기한다"라는 강령은 수정되어 "...생활향상을 위한 노동자의 수양을 본위로 함..."이라는 굴종적인 문구로 변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노동자가 복귀함에 따라 파업 노동자의 단결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고, 이를 본 원산 상의와 일제는 노동자측에 일대 공세를 가하게 됩니다.

파업 대열이 무너지는 것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4월 1일, 3일 연달아 함남 노동회를 습격하는 등 새로운 대응을 취하였으나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파업을 다시 추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원산노련이 4월 6일 직장 복귀를 결의함으로써 원산 노동자의 투쟁은 그 막을 내리고 맙니다. 이로써 원산총파업은 노련의 총파업 결정이후 84일 만에 투쟁의 고삐를 놓고 맙니다.

## 패배를 딛고 서는 원산노동자

총파업 패배이후 재건을 위한 첫 시도는 투쟁이후에도 조직력을 보존하고 있었던 인쇄직공조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산노련의 진용을 제정비하려는 시도는 일제의 탄압과 금지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929년 12월에 노련의 정기대회가 열리게 되고, 여기서 선임 집행위원장에

원산총파업은 그 지속성, 강인성, 격렬성, 조직성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노동운동사에도 보기 드문 노동쟁의였습니다.

박태선이 선출됩니다. 곧이어 1930년 1월 노련 청년부 주최로 열린 '원산대파업 희생자 환영대회'에서는 야간노동임금과 공휴일임금의 전액 지불, 16세 미만 노동자의 6시간 노동제 획득, 언론훈·출판·결사·집회·시위의 자유,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지불, 최저임금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열린 '원산대파업기념일' 집회에서는 경찰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3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8시간 노동제의 획득, 언론훈·출판·집회·시위·결사의 자유 획득을 위한 투쟁방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자본가들이 원산노련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한 합남노동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사업이 꾸준히 전개되었습니다. 총파업이후 부득이 합남노동회에 가입하였던 노동자들은 어용노조 안에서 노동조합의 민주화와 자주성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1929년 총파업을 통해 노동자의 단결과 의식의 고양을 경험하였던 노동자들은 비록 투쟁에서는 패배하였지만, 이후 1930년대 비합법적 노동운동 상황 속에서도 노동자와 민족의 해방을 위한 싸움

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갑니다. 이렇듯 원산총파업은 실패하였으나 그 투쟁의 전 과정은 조선의 민중들을 분노하게 하였고 노동계급이 반일 민족해방투쟁의 주역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원산총파업의 교훈

원산총파업은 그 지속성, 강인성, 격렬성, 조직성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노동운동사에도 보기 드문 노동쟁의였습니다. 우리는 원산총파업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선 원산총파업이 그토록 치열하게 전개 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탁월한 노동운동가로 구성된 지도부의 역할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이하간부들은 1920년대 이래 노동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던 사람으로서 참입이후 꾸준히 노동쟁의를 지도하면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관산지역 노동자들의 한결같은 신임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식은 3.1운동 이후 원산에 내려와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심수년을 하루같이 심혈을 기울여 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부



터 중앙 조직인 '조선노동총동맹'의 간부로 추대되었으나, 조선노동총동맹의 파장에 문제를 느끼고 자신의 역할을 오직 지방에서나마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일 본인 기업주 및 이를 비호하는 일제와 싸워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산 노련의 고문이었던 김두산 역시 민주독립단에 가담한 독립운동가였고, 다른 간부들 역시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청렴결백하였는가 하는 것은 총파업 과정 중에 발생한 회계장부 압수사건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일제는 원산노련의 경리장부를 압수하여 부정을 캐려고 하였으나, 당시 조사에 참여한 조선은행 원산지점장은 "단 한 푼의 부정도 없을뿐더러 그 장부는 하나도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장부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둘째, 원산노련은 조직 결성 이후 꾸준한 활동을 통해 조직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원산노련은 1925년 1월에서 1927년 12월에 이르는 3년 동안 26번의 파업을 지도하여 승리를 이끌어 냅니다. 원산지역에서 노련은 수십 회에 걸친 파업을 이끌면서 실제적인 단체교섭권을 확보하였습니다. 1920~30년대 노동조합들은 투쟁을 통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실제적으로 획득하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 시기 노동조합들은 1920년대 초에 만들어진 말뿐인 합법적 결사의 장에서 자신들의 역량

과 투쟁을 통하여 권리를 획득하였던 것입니다. 1920년대 후반이후 일제의 파쇼적 노동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권리들은 자본과 일제의 강한 도전에 직면하였으며, 노동자들은 이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원산총파업은 사실상 이러한 권리들에 대한 탄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셋째, 원산의 노동자들이 파업 기간 중에 보여 준 매우 높은 의식은 평상시 노동조합의 활발한 일상활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교육과 조직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봅시다.

원산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수 있었던 동력은 그들이 피압박 민족의 노동계급이라는 자각과 금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 향상은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의식적이고 헌신적인 교육·홍보사업을 통해 이뤄낸 결과입니다. 원산노련은 1927년 이래 사회과학과 노동조합운동의 실재를 병행하려고 강습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예컨대 1927년 7월 하순에서 10월초의 3개월에 걸쳐 진행된 강습회에는 60~70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문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가거거'를 배웠으며, 연합회에서는 작업 중 쉬는 시간마다 수시로 이들 노동자들을 모아 출장간 노련 간부가 각종 신문이나 잡지, 저술을 소리 높여 읽어 들려주고, 문제마다 상세한 해석을 하여 노동자들이 당연히 지녀야 할 지식이나 세계의 시

원산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수 있었던 동력은 그들이 피압박 민족의 노동계급이라는 자각과 궁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 향상은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의식적이고 헌신적인 교육·홍보사업을 통해 이뤄낸 결과입니다.

사문제 등에 대한 교양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사업과 함께 치밀한 조직 사업을 꼽아야 할 것입니다. 원산노련의 회원은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노동자면 너나 할 것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자격 조건과 각오가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굳은 단결을 얻자면 오합지중(烏合之衆)으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자유 노동자를 가입시킬 때에는 가입금 30원과 소비조합 출자금 20원 등 금전상의 엄격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실로 두 잔 먹던 술을 한잔으로, 세끼 먹던 밥을 두끼로 줄여 먹는 정성 없이는 가입이 안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까다로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산에 있는 노동자의 약 9할이 가입한 것을 보면 원산노련의 조직력이 어마했는가를 짐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조합, 노동병원, 이발소 등을 운영하여 조합원의 복지 증진을 꾀하였고, 구제부를 두어 조합원의 경조사를 비롯한 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노동자라는 의식이 실로 ‘한 배를 가르고 나온 친형제보다도 더하게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여 주며 지냈다’고 합니다. 아

래의 사례는 그 하나의 예입니다.

1928년 3월에 조합원 우상준씨가 부두에서 일하다가 중상을 입자 원산노련의 교섭으로 기업주인 국제통운에서 부상위자료 5백원을 받아 내어 다섯 달 동안 입원해서 치료케 한 뒤 23개의 조합에서 각각 5원과 또 동자들이 10원도 내고 20원도 내어 도합 3백원의 금액을 만들어 주어 우상준으로 하여금 가게를 차리게 하여 생활할 수 있게 했다

이제 원산총파업이 그토록 치열하게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당시 노동운동 내부의 문제입니다. 당시 서울에는 1927년에 조직된 노동자의 전국조직인 ‘조선노동총동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은 간부들의 파쟁으로 이름에 걸맞은 통일적인 지도역량을 갖지 못했습니다. 원산총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모습은 많았으나, 실지 연대와 지지를 위한 파업투쟁이 조선 땅에서는 일어

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고베(新戶), 오다루(小樽)의 부두 노동자가 동정파업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 고립된 총파업은 전국적 조직력의 동원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새로 구성된 파업 지도부의 패배주의적 투항주의적인 자세입니다. 원산총파업이 노동자의 완강한 투지와 물질적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일시에 와해된 중요 원인은 새 간부들의 투항주의와 청산주의적 태도에 있습니다. 그 당시 일제는 노동쟁의가 발전되어 전국적인 반일운동으로 변질 것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든 이 투쟁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파업 지도부가 조금만 더 버티고 완강히 싸웠다면 투쟁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파업 지도부의 투항주의적 태도와는 달리 현장 조합원들의 저항은 수그러들지 않고 완강하였습니다. 4월 7일 김경식위원장 외 수십 명의 노동운동가들이 함흥지법으로 압송되는 것을 본 파업 노동자 4,500명은 일제 경찰에 맞서 투

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항거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파업노동자 대부분은 지도부가 굴복한 후에도 투쟁의 뜻을 멈추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민중을 격동시킨 원산총파업은 일제의 탄압과 타협적인 지도부의 투항으로 실패로 끝났으나, 장장 4개월 동안 원산시를 완전 마비시킨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은 일제의 통치에 크나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원산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국 각지의 노동자·농민의 투쟁을 고무하였고, 노동자계급이 반일 민족해방투쟁의 선봉에서 있음을 과시하였습니다.

원산총파업이후 일제는 소위 '문화통치'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식민지에서의 모든 사회운동을 잔혹하게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산총파업 이후 노동운동은 점차 비합법적인 지하조직운동으로 변해갔습니다. ❖